

주일의말씀

가서 그를 타일러라

신현옥 루카 신부
감삼성당 주임



어릴 적 밖에서 놀다가 동네 형한테 맞고 들어 온 적이 있었습니다. 울면서 집으로 들어오는 저를 본 바로 위의 누님이 즉시 달려 나가 나이도 더 많고, 덩치도 더 큰 그 형과 싸워 KO를 시켰습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와 힘이 났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형제자매들, 곧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못 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잘못 되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서로에게 무관심하지 않으며 서로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만일 우리가 가족 중에 누가 잘못 되었을 때 별로 마음이 아프지 않는다는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우리 안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형자매 여러분,

오늘 독서와 복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녀야 할 사랑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제 1독서에 보면, 하느님께서 에제키엘 예언자를 향하여 예언자의 사명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만일 죄인이 그 잘못을 타일러주지 않아서 그가 죽었다면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을 나는 너에게 지우리라.’** 곧 예언자는 하느님을 떠나 그분의 계명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잘못을 바로잡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2독서에서는 그것이 바로 사랑의 의무요 책임이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사랑의 계명에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타인의 불행에 대해서 결코 무관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공동체의 형제자매가 공동선을 해치고 죄를 지을 때, 공동체는 그를 고쳐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내쫓을 권한도 있지만 공동체의 사명은 그를 내쫓는 데에 있지 않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착한 목자처럼 그를 찾아오도록 노력하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사실 요즘은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 것이 보통의 일이 되었습니다. 괜히 잘못 관여했다가 봉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보고도 모른 척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교회공동체 내에서도 누가 잘못을 해도 그것을 바로 잡아 주려하기 보다는 그냥 참거나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무시하거나, 또는 왕따를 시켜 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 신앙인의 삶의 모습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사람을 포기하는 것 보다 더 큰 잘못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혜를 다해서 노력한다면 분명히 주님께서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생명의말씀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마태 18,15 참조)

제1독서 : 에제 33,7-9 제2독서 : 로마 13,8-10 복음 : 마태 18,15-20.

100년사 편찬 막바지 작업에 구슬땀

“역사의 한 기점을 살고 있다는 의식을 가져야”



교구 100주년 3대 기념사업 중의 하나인 교구 100년사 편찬 1차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연대표와 화보집, 통사로 구성되는 교구 100년사 편찬은 대구대교구가 대구대목구로 설립된 1911년 4월 8일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기록하는 작업입니다. <은총의 100년, 감사의 100일 기도>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이 역사는 단순히 사람이나 단체의 역사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끌어 오신 역사입니다.

100년사 편찬의 세 가지 작업 중 두 가지, 연대표와 화보집은 이미 작업이 완료되어 출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사는 아직 마무리 작업을 남겨두고 있는데, 100년사 편찬위원회 사무국장 김태형 베드로 신부님을 비롯한 5~6명의 신부님들과 각계 전문위원들이 토론을 거듭하며 마지막 수정 보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3회 정도 더 전체 보완작업을 거쳐 올해 안에 책이 출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통사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는 초대 교구장이신 드망즈 주교님으로부터 제 9대 교구장 최영수 대주교님에 이르기까지 각 교구장님들의 치적을 중심으로 교구의 역사를 연대기 식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2부는 사회복지와 교육, 소공동체운동 등 주제별로 변화와 발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100년사 편찬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교구 사료담당 이찬우(다두) 신부님은, “자료가 있어도 깊은 내용을 알기 힘들고 특히 해방 전후와 6.25 전후 자료는 구하기도 힘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당시 사람들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감명을 전해 줄 때는 보람과 즐거움을 느낀다.”며,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역사의 한 기점을 살고 있다는 의식을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하시고 교구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구대교구 100년사 편찬은 하느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찾아내고 정리함으로써 앞날을 위한 신앙의 증거를 남기고자 하는 것이기에, 단순히 지난 일들을 기록해 두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교구의 미래에 대한 지침과 새로운 100년을 향한 도약의 발돋움은 얻게 될 것입니다.

취재: 장성영(안드레아)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모아서

박성규 엘리지오





오늘의 미사

연중 제23주일

입당성가

283 순교자 찬가

화답송

◎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봉헌성가

342 제물 드리니

영성체송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제 영혼이 하느님을,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하나이다.

파견성가

290 복음을 전한 사도들

영성의 향기

:: 그리스도처럼 되려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모상으로 만드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들을 이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부딪히는 모든 곤란과 역경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기회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하신 말씀처럼 결국 없어지고 말 황금도 불로 단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고난은 인내를 낳게 하고 인내는 시련을, 이 시련은 끈기와 희망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것과 똑같은 경험을 겪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하느님의 모상을 드러낼 기회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비탄에 빠집니다. 하지만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법으로 삶의 역경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법이란 먼저 하느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는 것, 또 그분이 무한히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정말로 믿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어떻게 하여 주는 것이 좋을지 이미 나는 뜻을 세웠다. 밝은 앞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예레 29,11)



- 교구사목국 권가타리나 수녀 -

교부들의 지혜

오직 하늘나라의 보화만을 원하는 행복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는 말씀은 하늘나라가 단순히 외적 재물이 없는 사람의 것이라기보다 내적 겸손을 지닌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임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겸손의 축복은 부자들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점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된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는 도중 앓은뱅이가 애궁을 청할 때, 그는 “나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가난보다 더 부유한 것이 있겠습니까?

- 성 대 레오 교황의 <참된 행복에 대한 강론>에서 -

정하권(폴로리아노) 몬시뇰 회경축 감사미사
일시: 9.15(목) 15:00
장소: 대구가톨릭대학교 효성캠퍼스(하양) 성당
문의: 대구가톨릭대학교 교목처, 850-3095
※개별초대 생략, 성직자는 장백의·영대 지참

모임/행사

교구 도보성지순례

일시: 9.24(토) 09:30, 진목정 성지
미사: 10:00(주례: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
코스: 진목정~범굴~
순교자 3위의 가묘~진목정
문의 및 신청: 본당 사무실

“밥이 되어 주세요!”

굶주린 아이들을 위한 7080 밥 콘서트
일시: 9.10(토) 16:00, 19:30(2회 공연)
장소: 봉산문화회관 대공연장(가온홀)
문의: (010)9577-7819, cafe.daum.net/BOBBAND

성소/피정

대구가르멜여자수도원 성소 상담

시간: 08:00~17:00 언제나 가능(대상: 젊은이)
문의: 622-4408(camelgdn@hanmail.net)
※ 매월 첫 토요일 기도 17:00 초대합니다.

티없으신마리아성심수녀회 제3회 지원자 모집

월모임: 매월 넷째 화요일 09:00~17:00
모집기간: 7월~9월 말
장소: 교구청 내 꾸르실료 교육관
자격: 55세 이하로 성모님을 닮고자하는 분
문의: (051)634-4820 / (010)6711-4819

젊은이 신약성경 통독 피정(회비: 1만원)

사도행전: 9.23(금)~24(토)
서간들: 10.21(금)~22(토)

요한복음: 11.25(금)~26(토)
장소: 수원 성빈센트드뵐자비의수녀회
문의: (011)336-8107 / (010)8833-8107

제주 성이시돌 피정 알림

(미사, 말씀, 성지순례, 자연피정)
일시: 9.26(월)~29(목) / 10.1(토)~4(화), 9(일)~12(수)
10.18(화)~21(금), 25(화)~28(금) / 11.6(일)~9(수)
문의: 성이시돌피정센터, (02)773-1455
※개인, 구역반장 및 단체 환영

교육/모집

시편성가연수강정선 수녀, 발성법(박재연)회비1만원
일시: 9.4(일)15:00, 가톨릭음악원(255-4847)

새빛학교 기초 영어·한문반 모집

영어 개강: 9.6(화) 13:00
한문 개강: 9.6(화) 15:00
문의: 교무실, 476-3100(교대역)

제10회 대학생 필리핀 해외봉사·어학연수

기간: 3차 9.28(수) 출발, 8주, 12주
기타: 캐나다, 호주 연계연수 가능
문의: 대구청소년수련원, 593-1273

2011년 2학기 신학교육원 수강생 모집

신학(교회법, 성사론, 전례, 몸의 신학
동양철학, 선교신학) 신약 및 구약성경
특별(수덕신학, 생활법률, 사도행전, 심리학)
다음 카페 검색: 신학교육원
개강 및 문의: 660-5105~6

스페인어 초급반 모집

기간: 기초반 3개월 과정, 대상: 성인
문의: 가톨릭 근로자회관, 253-1313

대구가톨릭대학교 TESOL 5기 모집

설명회: 10.1(토)15:00, 접수: 9.24(토)~
유학 시 학점인정 1년 내 석사학위

무료어학연수기회, 신부님 추천장학
21주180시간, 영어전담강사지원가능
문의: 526-0111(http://tesol.cu.ac.kr)

교회음악 지도자 오디션

오디션: 9.17(토)14:00, 개강: 9.24(토)
곡목: J.S.Bach의 Invention
3성부 중 한 곡 / 성가 중 한 곡
문의: 프란치스코, (070)4266-0045

직원 채용

요한의 집 시설관리기사 모집

자격: 시설관리(자격소지자 우대)
구비서류: 성요한복지재단 이력서,
자기소개서(일삼재활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문의: 963-7564, 마감: 9.19(월)

안내

군위묘원 미사

일시: 9.12(월) 11:00, 군위묘원

군위묘원 관리비(2차분) 납부 안내

2002년 1월 1일 이전에 장례를 하신 묘주께서는
묘원관리비를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비 미납 시 무연고묘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문의: 교구청 관리과, 250-3003

군위묘원 성묘안내

추석 당일은 많은 성묘객으로 인해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가급적 추석을
전후해서 성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 검진

대상: 2011년 대상자
문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650-4591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꼭 예약)
건강검진은 암 조기 발견에 좋습니다.

미 사	일 시	장 소	미 사	일 시	장 소
밀알후원회 및 시각장애인 선교회 월례미사	9월 5일(월) 오전 11시	계산주교좌성당	꾸르실료스파 월례미사	9월 5일(월) 오후 7시 30분	꾸르실료 교육관
경주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9월 5일(월) 오전 11시	성동성당	지속적인 성체조배의 성시간 및 미사	9월 5일(월) 오후 10시	한티순례자의집
5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9월 5일(월) 오전 11시	선산성당	해외선교후원회	9월 8일(목) 오후 2시	성모당

이원의료기

혈압계·혈당계·휠체어·인마기
뜸·부항기·찜질기·체온계
글루코미터·오메가3·칼슘
변상법(도미니코), 김인숙(아니타)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 앞
☎ 053-256-2512(대표), 2513

분도는 한 방울의 기름도 속이지 않습니다!



분도|석|유

전화 한 통이면 어느 곳든 달려갑니다.
☎ 080-421-5151(무료전화)
424-2240, 743-1977, 957-9543
대표 김현철(베네딕도)

진실한 신자와의 만남의 장

성가정 결혼상담소

474-0025, 476-9275
가톨릭문화관 2층
남대구우체국 옆 교대역 입구
권중문(파비올라)

결혼정보회사

마리아 요셉 결혼이야기

(초혼, 재혼)
전국대표전화: 1566-6205
대구 - 070-8827-6207
부산 - 051-817-3885-8
서울 - 02-579-3889
02-3141-3888
http://www.mjms.co.kr
대표 김순자(마리아)

3대를 전통과 신도봉이를 고집하는 기업 (주)약령시사람들

“경육과 다양한 제품류”
● 노인성질환, 성정기어린미, 수험생,
갱년기 여성교육원 특별 우대
웰빙건강식품, 각종 선물류
대표: 양대석(안토니오), 임영주(모니카)
☎ 428-8002, 011-528-8008

수맥 흙(돌)침대

불면증, 허리통
임응승 신부님 수맥지도
☎ 1588-5335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사회복지법인 서정길 대주교재단 데레사소비엔타

수익금 전액의 사회사업에 활용됩니다.
*청과, 이채, 선어, 정육
*신선, 가공식품, 공산품, 생필품
*생활, 패션잡화, 수입주방, 수입가전
765-1500 (어린이화관맞은편)
대표이사 장영일(그라산도)신부